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인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제 소원은 단 하나,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뿐입니다”

▶ 시간이 좀 지났습니지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지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의사로서 지역주민의료를 맡아 일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노하우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IMF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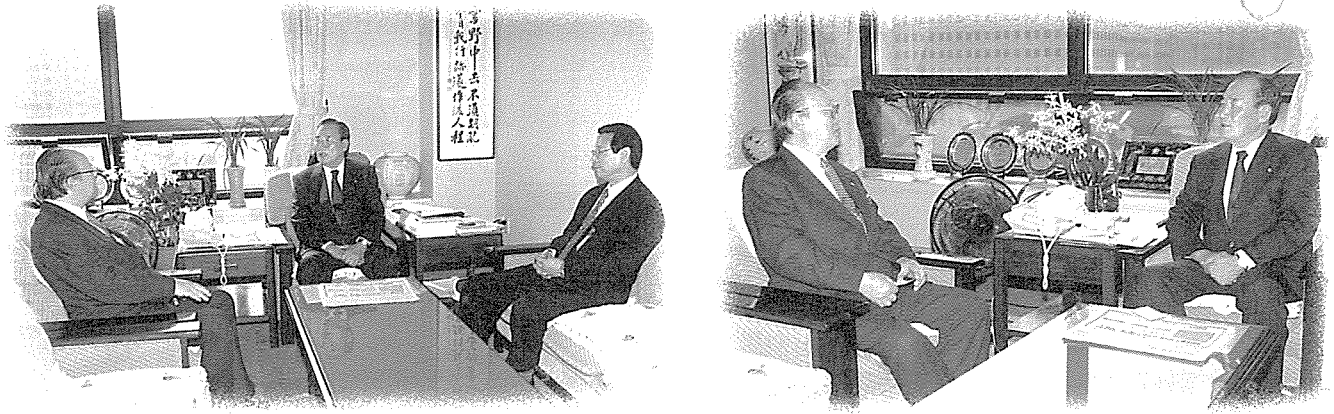
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국민의 보건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까요. 특히 IMF 체제를 맞으면서 영세인·노인·장애인·실직자 등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못살수록 이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건복지 정책,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생산성 있는 복

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관련 저소득층 대책,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확대, 의료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법 개정,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문제는 모든 분야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 있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우리 위원회가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통해 더욱 현실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회장(사진①좌측), 하성미 사무총장(사진①우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찬우 보건복지위원장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영덕의 토박이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랐고 그곳에서 외과 전문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위 취득 후 대구나 도회지에서 개업을 했다면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그보다는 너무도 낙후되어 있는 고향 영덕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보자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낙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다보니 향군회장, 동창회장, 관변단체장 등을 본의 아니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0년대 신 군부에 의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적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으로 주변의 추천을 받아 민한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청이 저를 국회의 후보로 보냈다고 할까요?(웃음)

▶ 지금까지 잊지 않고 지켜오신 정치적 소신이랄까, 좌우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국민보건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 영덕에서의 개원의 시절에도 그랬고 정치에 시작하면서도, 사람들 즉 국민의 삶과 더불어 살며 작으나마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살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나, 밀바닥 취약계층을 잘 살게 하는 것뿐입니다.

▶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 영덕 자랑도 해주십시오.

제 젊은 시절의 꿈을 바친 곳이라고 한다면 적합한 표현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명예보다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었고 주민의 생활수준도 낙후되었던 고향에서의 개원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외과 수술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살려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도 좀 했습니다.

영덕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얼마전 모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름을 날렸던 강구항도 영덕에 속해 있습니다. 영덕은 청정해역으로 유명하고 고래를 해수욕장의 20리 모래사장은 정말 이름답습니다. 특산물인 영덕 대게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죽었고 또 남획이 성행하다보니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5월~11월말에는 잡지 못하게 규정하면서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IMF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은 지역적으로 많이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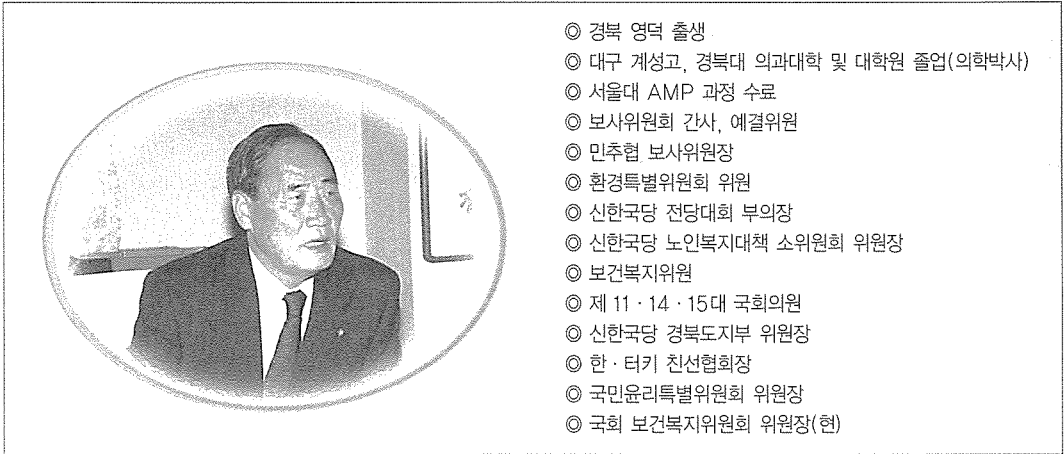
후된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향하면서 이제는 여느 농어촌과 다름없이 대부분의 주민이 노인들입니다. 앞으로 영덕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관광과 문화의 명소,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국민 보건역시 향상을 위한 순회이등보건교육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994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보건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선진제도의 정착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다는 사업 수행 과정의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당초의 목적대로 국민 보건역시 향상과, 질병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IMF에다 수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요즘, 건강문제는 자칫 경시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행



- ◎ 경북 영덕 출생
- ◎ 대구 계성고, 경북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 서울대 AMP 과정 수료
- ◎ 보사위원회 간사, 예결위원
- ◎ 민주협 보사위원장
- ◎ 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 신한국당 전당대회 부의장
- ◎ 신한국당 노인복지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
- ◎ 제 11·14·15대 국회의원
- ◎ 신한국당 경북도지부 위원장
- ◎ 한·터키 친선협회장
- ◎ 국민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겨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순회 이동보건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보건의료정보 접촉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산간오지·도시 저소득층주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바른 건강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순회 이동보건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보건교육, 보건의료 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정부와 보건관련 단체 등 사업 수행 주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우리 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협회는 기생충질환 퇴치와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조사연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익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충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와 바쁜 사회생활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대 병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암·뇌졸중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운동을 실천하고 병원을 찾아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어려움과 함께 적지 않은 실직자들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익 보건의료 사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이러한 부문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기관이 될 수 있

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할텐데요,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건강체질을 타고났습니다. 학교 때 운동도 잘했고요, 중학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농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즐기는 편이고.

술은 아주 좋아합니다만, 담배는 92년에 끊었습니다. 학생시절부터 골초로 유명했었는데, 기침도 자주 하고 폐도 나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과감하게 금연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아주 좋아졌죠.

▶ 기타 국민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모든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를 이해하고 따라주고 충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2